'광주국제거리예술축제'…13-15일

2년 만에 돌아온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전문 거리예술축제로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전남광주 통합 원년을 맞아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공연의 기회를 넓히고, 광주의 거리와 광장을 무대로 시민과 예술이 만나는 축제를 선보인다.





▶지난 2024년에 열린 제9회 광주프린지 페스티벌

2년 만에 돌아온 광주프린지…'거리예술' 정체성 강화

광주문화재단, 5·18민주광장서 국제거리예술축제로 새 출발

통합 원년 맞아 지역예술가 참여 확대…5개국 36개 작품 선봬

최소한 거리 통제 일상 속 예술 구현…아트마켓 등 교류 확장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3-15일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만나다, 나아가다'를 주제로 제10회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주국제거리예술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5개국 36개 작품이 참여하며 무용, 서커스, 거리극, 설치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특히 2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가장 큰 변화는 축제의 정체성이다. 기존 프린지페스티벌이 전문 공연단체와 생활예술단체, 아마추어 공연이 혼재된 형태였다면 올해는 전문 거리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편했다.

또한 통합 원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광주국제거리예술축제'라는 명칭을 내세우고, 거리예술의 실험성과 도전성을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공간 운영 방식부터 달라졌다. 공연을 위해 도로를 막고 무대를 설치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거리 자체가 지닌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데 집중한 것.

조영선 예술감독은 "거리예술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싶었다"며 "평소와 다른 거리 통제는 최소화하고, 작품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간이 변화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축제는 지역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점도 주목된다. 전남광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특화 공모를 통해 지역 기반 예술단체 6개 팀을 선정했다. 여기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창·제작 지원사업인 'ACC 시즌 예술인' 선정 3개 팀도 참여한다.

지역특화 공모에는 무우, 빅보스마칭밴드, 전통연희놀이연구소, 일브로, 정유주, 초록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음악과 무용, 전통연희 등 각자의 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광주의 거리를 채운다.

초연작도 대거 선보인다. 유지수의 '꿈의 집', CCA+OO의 '광주 지게', 국립현대무용단의 '비보호', 포스의 '마찰', 코드세시의 'RULE the PLAY', 무소속연구소×스튜디오 사라다의 '소리와 장난' 등 6개 작품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소개된다.

가장 주목되는 프로그램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제공연 '일단 만나 DIY'다. 14일 오후 5시 18분 충장로와 구시청, 동명동, 예술의 거리 등 네 곳에서 출발한 공연 행렬이 5·18민주광장에 모여 풍선을 들고 하나의 공연을 완성하는 시도로, 시민 참여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점이 거리예술의 열린 방향성을 담았다.



유지수의 '꿈의 집'(Dream House)은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된 옷 위에 직접 남긴 글과 그림이 더해 특별한 공간을 탄생시키는 퍼포먼스로 14일과 15일 ACC 상상마당과 하늘마당에서 이동형으로 펼쳐진다.

또 전국 거리예술축제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로도 의미 있다. 11월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전국 거리예술축제로,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13일 동구 미로센터에서 열리는 '거리로 프로젝트'에는 전국 18개 예술단체가 참여해 작품을 소개하고 쇼케이스를 선보이며 거리예술 작품의 유통과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10회째를 맞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명실상부한 국제거리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전남광주를 대표하는 거리축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축제의 주체로 참여하고, 한 해의 거리예술을 광주에서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복 기자

'세대 잇고 청춘 노래하다'…청춘마이크 특별공연 성료

전라·제주권 28개팀…8개 협업 무대

강강술래 피날레 등 세대 공감 대축제

청년 예술인들의 열정과 실버 공연팀의 연륜이 어우러진 세대공감의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졌다.

2026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특별공연이 지난달 31일 광주 황룡친수공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 (주)상상오가 운영한 이번 공연은 '세대를 잇고 청춘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특히 총 28개 공연팀이 8개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장르와 세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합동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은 '조재희×최민석' 팀과 '별소, 달소' 팀의 무대를 시작으로 청춘의 찬란함과 고민을 담아낸 오프닝에 이어 클래식, 대중음악, 국악, 다원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연합 공연이 이어졌다. 대미는 '세대링크' 팀을 중심으로 청년·실버 공연팀과 관객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강강술래 퍼포먼스가 장식했다. 참여자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의 원을 그리며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나눴다.

공연장 주변에서는 성과 사진전과 소통형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 홍보 팝업존,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장초롱 총감독은 "청년 공연팀들의 열정과 실버 공연팀들의 연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진정한 세대공감의 무대가 완성됐다"며 "공연팀들이 나눈 온기와 울림이 지역민들의 일상에 따뜻한 힘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복 기자

40년 만에 하나 된 전남광주, 프랑스서 길을 찾다

광주MBC '가지 않은 길' 오늘 방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짚어보는 광주MBC 창사 6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가지 않은 길'(기획 주현정, 연출 천홍희, 촬영 김환·김상배·임원후) 이 5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다큐멘터리는 10년 전 지역을 통합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전남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프랑스는 지난 2016년 기존 22개였던 레지옹을 13개로 통합하는 지방행정 개혁을 단행했다. '가지 않은 길'에서는 통합의 성과와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오베르뉴론알프와 그랑테스트를 찾아 주민과 지방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오베르뉴론알프에서는 항공우주 기업 사프란의 투자 유치 사례를 통해 통합으로 강화된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랑테스트로 통합된 알자스 지역에서는 고유의 이름과 문화를 지키려는 주민들을 만나 지역 정체성과 주민 동의의 중요성도 조명한다.

특히 4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된 전남광주의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간 갈등과 광주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짚는다. /오복 기자

